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11:00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

○ 간사 정웅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 총무담당관 정웅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수 뉴시스 전북본부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강득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주화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린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평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종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는 재적위원 12분 중 8분이 참석해 주심으로써 성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단서에 심사위원인 위원이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회피규정에 의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김정수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평근

예. 빙게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빙게되서 너무나 반갑고요, 먼저 지난 10월 2일에 있었던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관련하여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앞으로의 회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적위원은 위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 총12명입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으로, 7명 이상이 출석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정족수 요건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기서 출석위원은 해당 심사에 참여한 위원을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단서인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회피 규정에 의해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은 출석위원에서 제외하고 의결정족수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최강득**

어. 그럼 지난번에 그 규정을 읽어주시면서 설명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때 제가 물었거든요. 의결할때는 현재 재석의원, 재석의원의 3분의 2 또는 과반수로 하거든요., 그때 물었을 때 읽어주시면서 출석위원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해서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아 그러냐고 해서 다른거 같다고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맞죠?

○ **위원장 오평근**

예

○ **위원 최강득**

의결은 재석위원 가지고 따져야지 없는 분은 의미가 없으니까

○ **위원장 오평근**

그니까 그때 잠시 착오가 있어서 제가 주문을 자세히 했는데 법률자문까지 거쳐서 이렇게 내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 **위원 최강득**

사실 이게 오래전에 국회에서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었

던 사례예요. 의결은 재석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희도 학교에서도 수많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었거든요. 심의하는 의미가 머냐 의결하는 의미가 머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아마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준 방법이 맞을꺼예요.

○ 위원장 오평근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률자문까지. 그때 좀 애매해가지고 미안하더라구요. 그때 혼선이 있어서.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의 없으신가요?

○ 위원일동 예

○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농업복지환경팀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도의회 정책연수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평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선진국가 벤치마킹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목적 및 내용입니다.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해소와 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자치의과대학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 도치기현청과 자치의과 대학을 방문하여 설립 운영 계획 및 교육 과정 등을 청취하고, 시설 견학을 통해 일본 자치외과 대학의 설립 과정 및 지역 의료체계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장 기간은 2024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이며, 출장국은 일본으로 지역은 도치기현입니다.

기관 섭외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등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출장자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 6명, 정책지원관 1명 및 문화안전 소방위원회 의원 1명입니다. 또한 연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업무 소관인 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과장, 공공의료팀장 및 군산·남원 의료원장 등 총 9명 등 총 17명이 합동 연수할 예정입니다.

출장지별 업무 내용은 위원장은 총괄을 담당하고, 위원회 의원 등은 일본 자치의 과대학 관련 설립 과정 및 운영 현황과 지역 의료체계 효과 분석 등 내용 정리를 담당합니다. 정책지원관 등은 연수 전 배경 자료 수집과 의원 보좌, 경비 및 일정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장 경비는 의원 1인당 182만 원으로 1,273만 원, 정책지원관 156만 원을 의회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개인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를 위한 전략 등에 활용하고,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수단 구성은 지난 9월 구성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담당 국장 등이 주축이 되어 사전 간담회 3회를 통해 국외 연수를 준비하였고요. 남은 기간 동안 집행부 및 현청과의 지속적인 조율로 효과적인 국외 연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외연수 후에도 관련 부서의 정책 간담회,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개정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연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평근

예. 김영수 농업복지환경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데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수 농업복지환경팀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린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 위원 이종린

출장목적지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장목적지가 출장목적에 부합한지 여쭙보고 싶어요. 여기 출장의 기본목적이 공공보건의료대학과 관련된

제도의 시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도치기현이 과연 그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공의료대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래 공공의료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의료를 책임지는 제도에서 발전한 것인데 그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체코라든지, 헝가리, 동구권이 잘 돼있구요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잘 돼있습니다. 전쟁을 오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과치료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1, 2위를 달리는 그런 공공의료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때 통상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베트남 국립 하노이 의과대학을 주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수많은 국내 외 의료기관에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본에 도치기현이라는 데는 도쿄에서 완행열차를 타고가면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도쿄 교외에서 경치가 제일 일본에서 좋은 시골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니꼬라는 최고의 관광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노미야 라는 농촌음식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과연 이 지역에 자치의과대학이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과연 공공의료대학 벤치마킹에 큰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조금 의문을 갖고요. 하여튼 목적지 선정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분들이 거기를 가자고 찍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사회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제도를 제일 잘 가지고 있는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는 전국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이 50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일본이 경치가 좋은 전원도시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의료대학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구요. 지금 일본 자치의과대학은 2018년 우리나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 과정에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자치의과대학이 1972년 일본 총무성과 47개 지방정부에서 공동으로 설립을 하였는데 이때 그 목표 자체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낙후 지역 등의 의료 보장 강화, 지역 주민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 해서 추진했던 모델이고요. 지금 저희 그 국립의전원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자치의과대학에서 하는 목적하고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치기현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이종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세계의 모든 공공의료보건대학은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치기현에 있는 그 학교만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신중하게 더 좋은 벤치마킹 목적이 있는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가지고 일본 지역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공공보건의료대학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평근**

예. 발언이 끝나셨는가요?

○ **위원 이종린**

예.

○ **위원장 오평근**

예. 저기 최강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위원 최강득**

제3자가 보기에 이거 외유성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문제가 머냐 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포커싱이 잘못되지 않았나. 공공의대 또는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정부에서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공공의료로 몰고가지 마시고 차라리 이 상황이라면 자치의대를. 자치의대는 다르잖아요? 우리 의대는 자치의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주무르는 것이지 우리 특별자치도가 스스로 하는 그게 아니니깐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그 모습에 포커싱을 맞춰야 나머지 상황이 다 맞아 떨어져요. 공공의료는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궁금한 것이 도대체 우리 도나 도의회에서는 남원에 그렇게 세우기로 했다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거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자치의대 이쪽으로 해서 정부에 요구를 해 나갈려고 준비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혹시 그렇게 있나요?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 양성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 이런 문

제들은 국가 정책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저희 의료 저희 전북도 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대학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없어진 정원을 활용해서 그걸 이제 유치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추진이 되셨던 거고 이제 전라북도 자체로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이런 문제는 차후에 이제 정책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께서 의논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특위에서 이런 모델들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강득

예. 좋다고 봐요. 더 깊이 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해서 시작해야 한다. 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서남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딱 10년 근무하고 옮겼는데 그 자리에 정부가 약속하고 했던 것들이. 더구나 그 지역에 의대를 허가해 준 특별한 이유는. 3개 도가 중첩되는 부분인데 의료기관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서남대 의대를 허가해 줬었거든요. 물론 뒤에 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의료취약지역 되잖아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도의회나 우리 도민이나 모두가 좀 강하게 강하게 부딪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흥분해서 외쳤을 때 그런얘기 했었거든요. 한겨울 제일 추운날 옷통벗고 나가자 옷통벗고 나가서 얼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자 왜 우리는 이미 살만큼 살았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새끼들 어떻게 할꺼냐 내새끼들 우리지역에서 진료못받고 어떻게 할꺼냐 이게 너무 화가나가지고 그렇게 왜쳤는데 참 답답하더라구요. 그거 보면서 왜 우리 도는 맨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얻지못하고. 많이 분노가 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거 나올 때 마다 흥분을 합니다. 더구나 제 고향입니다. 제가 혼불마을 출신입니다. 그 작가가 저희 집안 고모님이고. 그러다보니까 더더욱 관심이 있고 그런지 몰라도 좀 전라북도에 의대가 딱 꼽혀 있잖아요. 전북대, 원광대, 이정도 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새만금 지역에 하나 허용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더구나 약속했던 거 그것도 안되고 있으니 너무 그런 그런거예요. 지금 목포대하고 순천대하고 의대를 이용해서 통합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근데 조금 너무 심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의회 의원님도 계시니까 도를 압박해서라도 같이 강하게 부딪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평근

취지는 잘 알겠고요. 또 다른 의원님? 네 김만기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 **위원 김만기**

제가 볼때는 전라북도의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최강득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해 놓은게 없어요. 해놓은게 없고 앞으로도 의대가 생기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데로 의대야 많죠. 그치만 특수목적을 가지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가 그걸 찾아보니까 일본이 된거예요. 그래서 일본 연수를 갔다와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런 대학처럼 전라북도에 똑같은 대학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을 우리 전라북도에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더욱더 발생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단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평근**

예. 제가 측면에서 들을 때는 우리 교수님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거 같고 기왕이면 동기부여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신거 같은데 이걸 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네. 정종복 의원님

○ **위원 정종복**

예. 정종복입니다. 오늘 논의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를 위한 전략차원에서 국외출장 관련된 건인데요.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의료 뿐만 아니고 지역 소외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100%동의하고요 오늘 안건에 대해 제 의견만 좀 말씀드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좀 먼저 일어나야 할 거 같아서. 저도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보니까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되고 필요성이 있다생각해서 추진하는 걸로 내용을 좀 보고 있고. 다소 아쉬운 점이나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이 의견도 존중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첨언하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한 국외출장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저는 안건에 대해 찬성을 하고 허락해주시면 먼저 좀 자리에서 일어날까 합니다.

○ **위원장 오평근**

여담인데 만일 안 계시면 투표가 이루어지면 거시기가 안되죠?

네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또 편하게 말씀해주시죠. 네. 손주화 위원님

○ **위원 손주화**

예. 손주화 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쭙보고 싶은데요. 출장일정과 관련해서 보통은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출장일정 중에 방문하는 데를 대부분은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시거든요. 공식일정 외에는 지금 다른 일정들이 다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왜 전체일정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구요. 두 번째는 지금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신다고 생각했는데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님은 왜 같이 가시는 건지. 이 의원님께서 지금 여기 앞에 써 놓으신 것처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 일정은 16일과 17일에 걸쳐서 16일에는 도치기현청 의료정책과를 방문하시고요. 17일에는 일본 자치의과대학을 방문하십니다. 이 일정이 공식적인 일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님께서 들어와 계신 건 이분이 공공의료대학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위원이셔서 꼭 참석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출신 지역이 남원이세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 **위원 손주화**

출장일정 말씀을 드린건요. 공식적인 일정 외에도 보통 이걸 하실 때 관광지라든지 이런 일정까지 포함해서 일정의 대부분을 보고해주시거든요.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네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단 기관 방문 일정이 확정되면 다른 일정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 **위원 손주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기획행정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장목적에 관련해가지고 출장목적이 불분명하고 상임위하고 좀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나하구요. 출장시기를 꼭 이렇게 연말에 꼭 가야되는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얘기를 저번에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출장을 간다는 연수를 간다는 것은 불필요한 외부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소지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렇게 출장목적이 방문지하고 잘 부합하지 않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간다는 거 자체가 논란을 일으키는 소지가 크니 않

은가.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연수일정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 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게 좀 개선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1년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연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년동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제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예. 저희 지금 특위를 저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 특위를 저희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 의원님들이 6분이 지금 중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특위 목적하고 저희 위원회 목적하고 거의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특위 자체가 9월에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까지가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심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걸 비껴서 시기를 정하다 보니까 12월로 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오평근**

회기가 언제 끝나죠? 정례회 회기가

○ **위원 윤영숙**

13일

○ **위원장 오평근**

13일날 아 종료가 되는가요?

○ **위원 윤영숙**

네.

○ **위원장 오평근**

예 또 질의, 예. 윤영숙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 **위원 윤영숙**

궁금한게 의원 1인당 비용이 189만 9천원이고 뒤에 인제 행정하고 아니 의료기관분들과 같이 가지않아요. 그분들도 1인당 비용은 동일합니까?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예. 비용은 동일합니다.

○ 위원 운영숙

아 그러면 궁금한게 여기 의회에서 가는 정책지원관이 자부담을 해야 되나요?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 운영숙

아 그러면 여기 행정은 이분들은 자부담이 있어요?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행정 부분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운영숙

행정은 있고 의원님들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있어도 약간 좀 같이가는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의원님들도 자부담이 있으시고 그 정도의 차이인데 조금 더 하시고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차이입니다.

○ 위원 운영숙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 위원장 오평근

여기 나와있는 분들은 자부담이 있다 그 말인가요?

○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영수

예

○ 위원 운영숙

의원님들 빼고는 조금씩 자부담이 있다는. 왜냐하면 예산이 각자 의회에서 세워진 예산과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여기는 의원들은 가는거에 충분하고 이제 사무

처 예산하고 행정예산은 그렇친 않구요

○ **위원 최강득**

보통 각 부서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행정에서는

○ **위원 운영숙**

예 의원 목과 다릅니다.

○ **위원 최강득**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의원님들하고 다르게 나타나드라구요

○ **위원장 오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평근**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날씨도 추운데 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 이 회의에서 위원님이 말씀드린 의견이 잘 반영되어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9차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